

편의점 맥주판매 금지에 맥주회사 직격탄

인도네시아 당국이 편의점과 간이음식점의 맥주 판매를 금지하면서 맥주 제조업체의 순이익이 무려 40% 이상 감소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17일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1위 맥주업체 빈탕(PT Multi Bintang Indonesia)의 지난 1분기 (1~3월) 순이익은 42% 감소했다. 당국이 편의점을 포함한 소규모 상점과 간이음식점에서 맥주 등 주류 판매를 금지하자 도소매 업체들이 일제히 재고를 줄인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앞서 당국은 지난 1월 편의점 등의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 계도기간을 거쳐 4월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그러나 중·대형 마트와 주류판매 허가를 소지한 호텔·레스토랑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맥주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35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발리 섬도 주류 판매 금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직격탄을 맞은 맥주제조업체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업체는 '편의점 맥주 판매 금지 규정'을 일부 완화하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판매를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 시사점

감소하고 있는 매출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증가하는 호텔 및 레스토랑 등으로 판로를 확대 변경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알콜 맥주에 주력해 매출 감소 보충을 도모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카르타는 주류판매 전문점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판매량 감소추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료 : Daily Indonesia(2015-06-17)